

BRICs,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등장

브릭스(BRICs)란 말이 최근 지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세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가로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용어다.

이 말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인구 대국이면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의 영향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더구나 50년후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6대 경제대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릭스의 경제규모

브릭스가 세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0월 미국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사의 보고서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에 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4대국의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환율 등에 대해 2050년까지의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브릭스의 경제규모는 2002년 현재 2조 5,000억 달러로서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이 40년 이내에 G6(미, 일, 영, 독, 불, 이)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실제 경제력의 비교를 보면, 환율이 아니라 물가 격차를 감안, 구매력기준으로 조정한 2003년도 국내총생산(GDP)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일본이 3위, 인도가 4위, 브라질, 러시아 각각 9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브릭스 4개국이 10위권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브릭스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원동력은 인구증가와 함께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과 외국자본이나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적 · 물적 자원이 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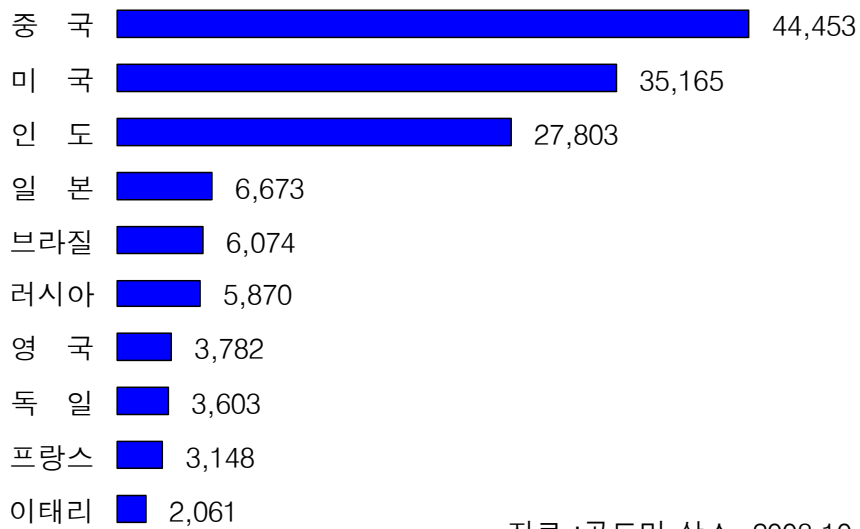
인구면을 보면 2000년 현재 세계 인구 10위권에 브릭스가 모두 포함되며, 4개국만으로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한다. 2050년에는 인도 16억명(1위), 중국 14억명(2위), 브라질 2억 3,000만명(8위), 러시아는 다소 감소한 1억 2,000만명(15위) 등 37억명으로 늘어난다.

자연자원 중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확인된 매장량을 보면, 석탄은 2002년 현재 중국이 세계의 30%(1위), 인도 7%(4위), 러시아 5%(6위) 등이고, 석유는 러시아 11%(2위), 중국 5%(5위), 천연가스는 러시아 2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금속자원을 보면 철광석은 브릭스가 세계의 56%, 알루미늄의 35%, 마그네슘의 67%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FAO의 '2000년 세계산림자원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산림면적은 1억 6,348만ha(국토면적의 17%), 인도는 6,411만ha(20%), 브라질 5억 3,249만ha(62%), 러시아 8억 5,139만ha(50%) 등 16억 1,147만ha로 세계 산림면적의 42%를 보유하고있다.

동시에 광대한 농지자원을 배경으로 농업대국을 형성하고 있다. 곡물과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국내자급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수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도 브릭스의 강점이다.

그림 1 브릭스의 2050년도 GDP(10억달러)



자료 :골드만 삭스, 2003.10

브릭스와의 협력강화가 과제

골드만 삭스의 전망대로 브릭스가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G6 대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령구성이나 출생률 등의 면에서 현재의 선진국에 비해 우위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성향상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브릭스간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도·중국간, 중국·브라질간 교역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DDA에서도 협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중국은 G20의 주도국으로 등장하였고, 더구나 브라질과 인도는 G5로서 WTO 148개 가맹국 중 미국, EU, 호주와 함께 중요 5개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브릭스의 정치력은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에도 브릭스의 동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와의 적절한 관계개선을 통한 교역확대와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성장에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